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3. 10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3/4~3/7)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 엔화 강세 영향 반영되며 1,450원대 진입 출발 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확대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중부유럽 종전 기대 등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의한 달러 약세 반영 및 미국 ADP민간 고용 부진에 달러 약세 심화 반영하며 하락 전환 양상 시현. 후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 부진 영향 속에 트럼프의 캐나다 및 멕시코 관세 유예 등이 달러 약세 촉발에 따라 원화 환율 하락 양상 지속된 가운데 장중 유로 강세 영향 추가 반영되며 하락 국면 지속. 주 후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였지만,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며 상승 전환 마감

## 달러/원 전망

- 지난주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 영향이 연준의 비둘기적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인식 등이 약달러 흐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
- 반면, 주중 발표될 2월 CPI의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애틀랜타 연준의 GDP전망이 전기비 연율 -2.4%로 제시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측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요인으로 판단
- 다만, 앞선 달러 약세 흐름 속 트럼프 관세 이슈가 다소 소강을 보일 수 있는 측면과 국내 정치 리스크 완화 가능성 등이 소폭 원화 강세 지지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1.0	1,462.2	1,437.8	1,446.8	-16.6

## 예상거래범위

1,435원 ~ 1,455원



# 유로·엔화 동향 (3/4~3/7)



유로화 동향

- 초반, 유로화는 유로존의 재정확대 가능성과 예상치를 상회한 2월 CPI 결과에 강세 흐름 출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달러가치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 달러 약세 속 유로존 재정 및 CPI 영향 등이 유로 강세를 견인한 형국
- 중반 들어, 독일 정치권 5천억유로 특별기금 설치와 부채 제한 완화 시도가 역사적 평가를 받는 가운데 유로 강세 지속 견인, 여기에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관세 완화 이슈도 달러 약세에 영향
- 후반 들어, ECB 기준금리 인하에도 라가드 총재 언급이 다소 매파적으로 인식되며 1.08달러 대 급등 후, 주 후반, 미 고용지표 부진과 중부 유럽 전쟁 휴전 기대감 등으로 재차 유로 상승 지속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374	1.0888	1.0368	1.0847	+0.0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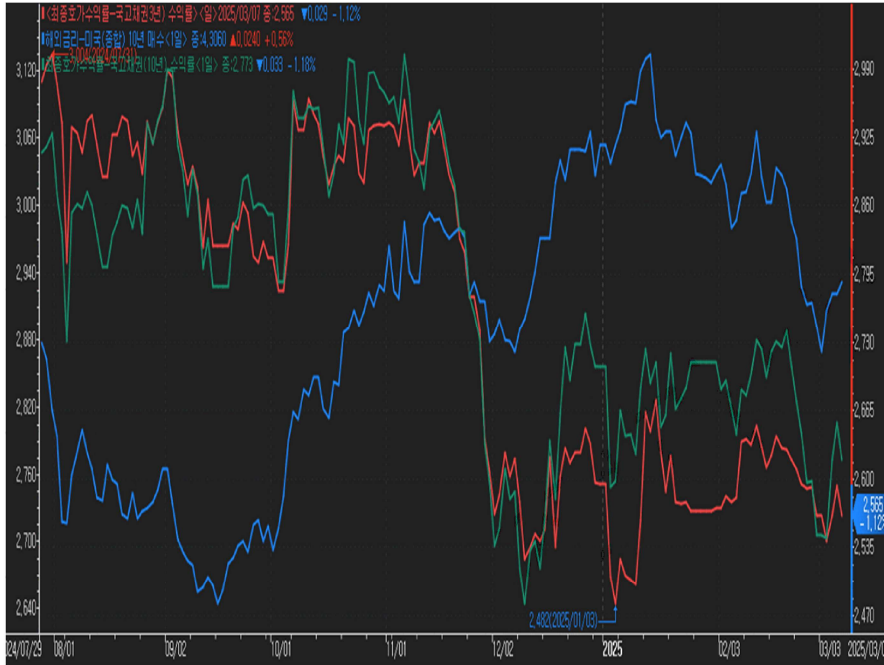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글로벌 달러 인덱스 약세 흐름에도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하락 출발한 엔화는 이어 미국 경기 둔화 조짐과 트럼프 대통령의 엔저 견제 강화 발언에 강세 지속
- 중반, 미 관세정책 강화로 확산했던 위험회피 분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엔화는 약세 국면으로 전환
- 후반 들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를 1개월 유예하겠다는 방침 발표와 민간 ADP 고용지표 부진 등이 반영되며 달러 약세에 따라 엔화는 재차 강세 전환 했지만, 이러한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0.5	151.3	146.9	147.9	-2.58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3/4~3/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국채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수위가 강해짐에 따른 경기 우려를 반영 하락한 가운데, 국내 1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 등이 부진한 측면이 더해지며 하락 출발한 국면 시현
- 중반 들어, 간밤 뉴욕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약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전주간 상승 흐름 나타낸 가운데, 중국 양회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5%제시 등도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 여기에 국고채 30년물 입찰에 따른 수급 부담도 대내적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 후반 들어, 유럽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 글로벌 채권시장 약세를 견인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세 지속 후, 주 후반, 연준 이사의 연내 점도표보다 1회 더 인하 가능하다는 언급이 도비시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2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관망 심리 속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실시 예정과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을 밑돌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증폭에도 일부 코스피 선반영과 방산, 조선 업종 등의 견조한 투자심리 등으로 약보합 출발
- 중반 들어, 미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일부 타협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 속에 중국 양회에서 향후 경기 부양책 등이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소폭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에 대해 유예를 발표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커진 측면이 투자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전환 후, 주 후반 트럼프 행정부의 유동적인 관세정책 방향성의 불확실성 속에 대내적 정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 전환 흐름에 마감